

☪ '99년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및 임시총회 개최

대학교협은 7.1(목)~7.3(토) 제주도 신라호텔에서 '99년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전국 188개 회원대학 총장들이 대학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의 해결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21세기 대학의 역할"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대학조직 혁신의 방향과 과제', '대학재정 운용의 효율화 방안',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의 조화' 등의 주제발표가 있다. 또한 설립별, 권역별 협의회별로 현안문제를 논의한다.

☪ '99년도 대학 교직원 연수 프로그램 운영

대학교협은 3월 2일 '99년도 대학 교직원 연수프로그램 개설 안내' 자료를 전국 회원대학에 송부하여, 참가신청 접수를 연중 받고 있다. 올해의 연수 목표는 지난 1월에 전국 대학의 주요 보직자, 교수,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수요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올바른 리더십과 전문적인 직무기술 및 역량'을 지닌 교직원 개발'로 설정하고, 총 34개의 프로그램을 43회에

걸쳐 운영한다. 연수프로그램은 워크숍과 패키지 프로그램, 대학자체 연수 지원 등이며, 특히 '전략적 팀 구축과 연봉제 설계과정' 등 대학의 구조조정에 관련된 패키지 프로그램들을 집중적으로 개설하였다. 연수 장소는 교육의 내실화와 참가자의 편의 및 경비절감을 위해 종전의 강원도 오색 외에 충남 온양 증권연수원으로 확대하였고, 참가비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였다.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는 '전략적 팀 구축과 연봉제 설계과정', '대학사무행정 혁신과정', '대학 新문서관리 실무과정', '고객만족 서비스 실천 과정' 등 4개 과정을 실시하였고, 4월 6일부터 4월 21일까지는 '대학 변화전략과 구조조정 추진과정', '대학 정보화와 연봉제 추진' 등 4개 과정을, 4월 27일~30일에는 경리실무행정직 워크숍을 실시하였다.

☪ 대학입시정보 제공 관련 간담회 개최

대학교협은 3월 11일 권태진 전국 홍보과장협의회 회장, 황대현 전국 입학과장협의회 회장, 김상태 서울 지역 입학과장협의회 회장, 임태시

전국기획과장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대학입시정보 박람회 개최, Cyber대학 정보박람회 개최, 대학입시정보 제공 및 대학합격자 안내(ARS) 컨소시엄 구성, 입학원서 공동접수 및 입학원서 전자접수, 제외국민과 외국인전형 컨소시엄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 제2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개최

대학교협은 3월 16일(화) 중앙대학교 대학원 국제회의실에서 "대학재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제2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에서는 전국 대학에서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학재정의 어려움(미충원 문제 포함) 및 대학등록금 인상 등에 대한 내용 등이 주로 논의되었다. 이종훈 중앙대 총장이 기조강연을 하고, 이현청 대학교협 사무총장의 사회로 김재규 총장(영동대), 이제복 기획실장(목포대), 이수용 기획연구실장(부경대), 박희종 기획관리실장(명지대) 등이 패널리스트로 참가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1회 대학교육 정책포럼은 '98년 9월 "연구중심대학, 무엇이 무엇인가?"를 주제로 프레스

센터에서 개최되었다.

☉ '99년도 하반기 대학교수 국내 교류 연구지원 계획 통보

대학교협은 3월 18일 교육부의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학교수 국내교류 연구지원 사업'의 하반기 지원 계획을 회원대학 및 전문대학 등에 송부하여 신청하도록 하였다. '99년도 대학교수 국내교류 사업은 총 예산 3억 원으로 '99.3.1부터 2000.8.31까지 전·후반기 각 1년 또는 6개월간씩 실시된다. 하반기 교류교수 신청 서류 접수는 '99.4.30에 마감하였다. 전반기에는 24명의 교수가 선정되어 현재 대학 및 연구소에서 교류근무중이며, 하반기에는 15명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전반기에는 2대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하반기에는 3대1의 높은 경쟁이 예상된다.

☉ 제95차 이사회 개최

대학교협은 3월 23일(화) 사학연금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95차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3월 11일 발표한 교육부의 교육발전 5개년계획(시안) 중 대학교육 분야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특히 대학 교무위원회 구성과 소위

공익이사제 도입 문제 등 쟁점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다.

☉ '2002학년도 대입전형계획 주요사항' 집계·발표

대학교협은 3월 24(수)일에 전국 177개 대학의 2002학년도 대입전형계획 주요사항을 분석·집계하여 발표하였다. 전형자료 활용면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대학(172개교, 97%)이 학교생활기록부를 반영하고 있으며, 대학 자체 전형자료를 반영하는 대학은 139개교(79%)로 나타났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67개교(94%)가 전형요소로 채택하지만, 반영 방법은 총점, 영역별 최소 자격요건(pass or fail) 등 다양하게 적용할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특별전형 유형은 '99학년도'의 18종에서 99종으로 다양화되면서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천제 전형 역시 32가지로 늘어났다. 또한, 처음 도입되는 전형자료인 비교과자료(158개교, 89%)와 정보소양인증제(139개교, 79%)를 활용하는 대학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99년도 대학교육 여건조사 실시

대학교협은 '1999년도 대학교육

여건조사 사업'을 실시한다. 조사기간은 '99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대학원 석·박사 통합과정' 항목을 추가하였고, 연구성과의 질적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연구논문을 전문학술논문과 일반논문으로 구분하는 등 대학의 교육 및 연구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또한 학생 및 교직원 현황 등의 항목에 성별 변인이 추가되었으며, 기존의 대학 설립별, 대학 유형별 통계결과 외에 지역별, 성별을 고려한 다양한 통계를 추출할 계획이다.

☉ 대학기성회비 징수 관련 문제 검토

대학교협은 1963년 이래 학생납부금의 일환으로 징수하고 있는 기성회비에 대하여 경기지역 일부 대학 학생단체가 납입을 반대하고 있는 활동에 대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9학년도 제1학기 등록금 중 기성회비 납입을 문제 삼고 있는 대학은 4월 15일 현재 전국 188개 대학 중, 경기지역 12개 대학 1,181명이며, 이들 중 상당수 학생들은 대학측의 설득으로 등록을 하였고, 극소수의 학생만이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교협은 사립대학의 경우 분리 징수의 실익이 없는 기성회비 제도를 수업료와 통합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국·공립대학의 경우는 국립대학 특별회계 제도 도입과 연계하여 개선함으로써 회계운영상의 복잡한 절차를 해소할 계획이다.

●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 제8차 이사회 및 '99정기총회·세미나 개최

한국대학사회봉사협의회(이하 대사봉)는 5월 4일(화) 10시 동국대 문화관에서 제8차 이사회를 개최하여 임원 선출에 관한 건을 논의하였다. 또한 동일 11시부터 동국대 예술극장에서 '99정기총회와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정기총회에서는 임원 선출에 대해 협의하였고, 이어 열린 세미나에서는 "대학교육개혁과 사회봉사교육"을 주제로, 김덕중 대사봉 회장, 이현청 대교협 사무총장, 이재정 성공회대 총장, 김길자 경인여대 학장이 발표하였다.

● 2000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 발표

대교협은 5월 6일(목) 전국 186개 대학(일반대학 157개교, 교육대

학 11개교, 산업대학 18개교)의 '2000학년도 대학입학 전형계획 주요사항'을 집계·분석하여 발표했다. 2000학년도 신입생 총모집 인원은 366,665명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올해 9월경 발표되는 대학별 정원조정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다. 이번에 발표한 주요 사항은 특히 대학별 독자적 기준에 의한 특별전형 유형이 매우 다양해지고, 그 인원도 전년도의 126개 대학 15,407명에서 131개 대학 29,410명으로 늘어나 학생이 특별한 소질이나 경력을 가진 경우 대학입학이 용이하게 됨으로써 수능성적 등 획일화된 입시문화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교협은 대학별 전형계획 주요사항을 수록한 책자 3,000부를 발간하여 전국 시·도 교육청과 각 고등학교에 배포하여 진학지도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 제96차 긴급 이사회 개최

대교협은 5월 10일(월) 오후 4시부터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2층 회의실에서 제96차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이사회에서는 대학의 기성회비 관련 현안문제와 '99년도 하계 대학총장 세미나 및 임시총회 개최 계획(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 연구보고서 발간

■ 1주기 평가실적 분석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RR제98-8-167)

이 연구의 목적은 대교협이 지난 1994년 이후 실시한 대학평가인정제에 대해 '대학평가인정제가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가?', '물적·인적으로 투입되는 재원에 대해 그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가?', '평가 방법이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게 구성되어 있는가?' 등에 관련, 반성과 함께 자체적인 분석을 통하여 대학평가인정제의 건전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내용은 대학평가인정제의 이론적 배경 및 연구, 1994년부터 1997년까지 평가결과에 대한 영역별 분석(교육, 연구, 사회봉사, 교수, 시설·설비, 재정·경영 영역, 대학원), 대교협 평가에 대한 설문 분석(평가 필요성, 평가 목적, 평가 운영, 평가 항목, 평가 절차, 평가 효과, 평가 결과)과 개선 방안 도출 등이다.

연구 결과, 제안된 내용은 평가인정제 목적의 체계적 정립, 대학관련

자료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필요, 평가 전문인력 교육 절실, 평가인정제 홍보 강화, 외형적 평가지양, 장

기발전계획에 대한 평가 강화 등이다.
 연구자 : 어운배(숭실대), 이현청(대교협), 장희익(서울대), 김영채

(계명대), 박명수(중앙대), 이종승(충남대), 허귀진(경희대), 권기욱(대구대), 최두현(대교협).

알 · 력 · 드 · 립 · 니 · 다



본지를
 더욱 알찬 내용으로 꾸며줄
 독자 여러분의
 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학교육 관련 논설, 대학에서의 연구·교수 및 사회봉사 활동 중에서 대학사회에 시사할 수 있는 주제 논의, 본지에 게재된 글에 대한 반론 등

■ 해당 칼럼 및 분량

- 논단 (200자 원고지 50장 안팎)
- 대학담론 (25장 안팎, 수필 형식)
- 나의 수업방법 (30장 안팎, 수업관 및 수업방법 소개)
- 대학은 지금 (30장 안팎, 대학 관리운영 혁신사례 등)
- 밖에서 본 대학 (12장 안팎의 대학 외부인사 수필 형식)

■ 참고사항

- 투고를 원하시는 경우, 원고의 내용과 목차 등을 간략히 적어 보내주시면 편집기획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 원고는 편집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하며,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
- 편집 및 기타 사유로 필요한 경우 경미한 사항은 원고를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

보내실 곳

(우)150-742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7-2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 편집실
 전화 : 3776-3181, 783-3065, 팩스 : 783-3645 info95@nownuri.net, kheri@hitel.net